

우크라이나의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1>

박안토니나,
교육학 박사(한국어교육), 부교수,
우크라이나 남부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
우크라이나, 오데사

Email: pak.as@pdpu.edu.ua

ORCID <https://orcid.org/0000-0001-9298-3697>

국문초록. 우크라이나는 영토와 지하자원으로도 큰 국가이다.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몰도바와 접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계 외에도 총 약 130개의 소수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도 소수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그 외 크림 타타르계, 유대계, 그리스계, 아르메니아계, 조지아계, 한국계, 러시아계 등 소수 민족들도 거주하고 있다.

2004년 오렌지 혁명 (Помаранчева революція), 2014년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발생한 키이우의 유로마이단 (Євромайдан) 혁명, 크림 공화국의 합병, 돈바스의 분리주의 내전은 역사의 일정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깊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침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2023년 1월 10일 기준, 1,387만명 이상이며 국내난민은 591만명 이상, 해외이주민은 796만명 이상이다.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발생한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이 언어 상황 (language situation)과 언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언어 정책은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갈등을 야기했으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언어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민족의식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을 고찰하고, 그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어의 위상 및 소수 민족 언어의 지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기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언어 상황, 언어 정책,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다양성, 언어 교육, 언어 사용, 국가 언어

LANGUAGE SITUATION AND LANGUAGE POLICY IN UKRAINE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1>

Pak Antonina,

*Ph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State institution "South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K. D. Ushynsky", Odesa, Ukraine*

Email: pak.as@pdpu.edu.ua

ORCID <https://orcid.org/0000-0001-9298-3697>

Annotation. The article presents the analysis of the Ukrainian language policy from 1989 to the present. The peculiarity of the ethnolinguistic situation is stipulated by multinationality and the use of a large number of languages for everyday communication by citizens of Ukraine. The author gives a description of the national and linguistic situation, brings the analysis of the ethnic structure in line with the choice of language for everyday communication. The result of the contradictory nature of the language policy is a fierce internal political struggle. The language issue was one of the key ones in all Ukrainian elections from 1989 to 2019. The language of everyday communication also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itizens' voting behaviour.

The analysis of key legal acts that implement, to one degree or another, the state language policy is provided. The autho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strong legislative framework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all citizens of multinational Ukraine. But other contradictory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as well as political contradictions both within the government an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create a conflict situation that negatively affects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in the country. Representatives of European states, primarily Hungary, gave a negative assessment of certain Ukrainian laws regulating the language policy. The main argument is the new Law on Education, its provisions infringing on the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

Keywords: *State language policy, the Ukrainian language, evolution of legislative norms, national minorities, foreign languages.*

우크라이나의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

1. 우크라이나의 약사

우크라이나는 영토(603,700 km²), 인구 4,500만 명, 풍부한 지하자원으로도 큰 국가이다.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몰도바와 접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계 외에도 총 약 130개의 소수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21, p. 207].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도 소수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그 외 크림 타타르계, 유대계, 그리스계, 아르메니아계, 조지아계, 한국계, 러시아계 등 소수 민족들도 거주하고 있다.

2004년 오렌지 혁명(Помаранчева революція), 2014년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발생한 키이우의 유로마이단(Євромайдан) 혁명, 크림 공화국의 합병, 돈바스의 분리주의 내전은 역사의 일정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깊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침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2023년 1월 10일 기준, 1,387만명 이상이며 국내난민은 591만명 이상, 해외이주민은 796만명 이상이다 [13].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발생한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이 언어 상황(language situation)과 언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언어 정책은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갈등을 야기했으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언어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민족의식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을 고찰하고, 그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어의 위상 및 소수 민족 언어의 지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기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평야와 들판이며 우크라이나의 농경지는 초르노젠크(Chernozem)이라는 흑토로 구성되어 있는 곡창지대이다. 우크라이나 국기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의 파란색은 맑은 하늘을, 노란색은 비옥한 토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충지와 비옥한 토지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가져오면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그리고 소련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크라이나를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엄밀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해왔다. 이와 같은 오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첫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0세기에서 13세기 중반 사이에 존재했던 키이우 루시(Київська Русь) 공국을 공통된 역사의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몽골 타타르의 침입으로 키이우 루시가 멸망한 이후 20세기 초까지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완성된 형태의 민족 국가가 존재해 오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10, p. 426].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 중심적, 소비에트 중심적 역사관은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전면적으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라는 명칭 자체가 12세기 연대기에 처음 등장했으며 일부 지식인들이 19세기 전반부터 민족을 칭하는 말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그 확산 속도는 느렸다 [5, p. 368].

고고학자들은 9~12세기 키이우 루시 땅에서 살고 있던 폴라니(Поляни), 드레블라니(Древляни), 볼리랴니(Волиняни), 부자니(Бужани) 등 동슬라브 여러 종족이 모여 우크라이나 민족을 형성했다고 본다.

1240년 몽골 타타르가 키이우(Київ)를 파괴하고 키이우 루시 공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키이우 대공국(키이우 루시, 882-1283) 대신 더 북쪽에 위치하던 노브고로드 공국(1136-1478)과 블라디미르-수즈달 공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5, p. 136].

그 후 키이우 루시 공국의 영토에는 12세기 말부터 14세기까지 할리치나-볼히냐((Галичина-Волинь) 왕국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결국은 수세기동안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1569-1795)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특히 폴란드로부터 강한 종교적, 언어적 영향을 받게 된다. 17세기 중반에는 우크라이나 중부에 코자크 수장국(Гетьманщина)이 세워져 백년 이상 러시아 제국의 압력을 견뎠으나 결국 폴란드의 세력은 약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제국과 합병된다. 18세기 후반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폴란드를 분할통치하면서, 1793년부터 우크라이나 서부 일부는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 제국 당시 우크라이나어가 금지되며 우크라이나어로 된 서적 출판이 금지 당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이 크비트카 오스노바넨코(Квітка Основ'яненко, 1778-1843)와 같은 우크라이나 문학어 창시자를 배출시켰다. 그리고 타라스 셰프첸코(Т. Шевченко, 1814-1861)와 이반 프랑코(І. Франко, 1856-1916)와 같은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을 통해 우크라이나어 표준을 정립시키며 보급시켰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1917-18년 우크라이나가 인민공화국 독립을 선언했으나 외부 군대의 침략으로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결국 1922년에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몽골 타타르, 할리치나-볼히나 공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소련이라는 다양한 국가의 지배를 거쳤지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 국가를 갖게 되었다.

새롭게 탄생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키이우 루시의 창시자인 볼로디미르 대공의 문장을 국가 문장으로 채택함으로써 1000년 세월의 우크라이나 국가 지위에 대한 요구를 합법화하려 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은 1000년의 우크라이나 국가지위를 상기시켰으며, 새롭게 채택한 민족·국가상징인 트리zub(삼지창, tryzub)은 키이우 루시로부터 1917-18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독립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역사의 연속을 강조했다 [10, p. 441].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소비에트의 기치 위에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과 현재까지도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 왜곡된 '역사의 복원' 과 '새로운 역사' 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 강대국들의 외압에 의해 와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 들을 생산해 냈고 현재 단계에서도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의 민족 구성

우크라이나에서 민족과 언어의 경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내외적 문제로 인하여 2001년에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인구총조사가 실시되었다 [19].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130여 개 민족공동체가 전통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밀집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족 구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민족 구성을 우크라이나계 외 토착민과 소수 민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національні меншини (спільноти) України»). 제1조는 소수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온 민족으로 공통의 문화·역사·언어·종교를 공유하며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언어·문화·종교를 보존·발전시키려는 우크라이나계 아닌 국민들이다 [3].

우크라이나 다수민족인 우크라이나계 외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살아가는 소수 민족들을 말한다.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 중에 키이우 루시 이후 우크라이나에 뿌리 내린 소수 민족들도 있지만 소비에트 시기 때 우크라이나에 이동 해 정착한 소수 민족들도 있다. 소비에트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와 정착한 한국계 고려인들도 있고 베트남계 소수 민족들도 있다. 한편, 2021년에 통과된 우크라이나 토착민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корінні народи України»)에는 토착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항 우크라이나 지역에 형성된 토착민족 공동체로,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며 전통 사회·문화 조직을 두며 소수민족 집단으로 우크라이나 국외에도 나라 없는 민족(stateless nation)을 가리킨다
2항 우크라이나의 토착민으로는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크림 타타르, 카라이임족(族)과 크림차크족(族)이 속한다 [4].

크림 타타르, 카라이임족과 크림차크족은 대부분 크림 반도에 살아왔던 토착 민족들로 크림 타타르와 카라이임인들은 튀르크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크림차크계는 유대계이다. 우크라이나는 소수 민족과 토착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어와 토착 민족어의 발달, 사용, 보호가 보장된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지리·언어·문화적 특성으로 서부, 동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뉜다. 서부 지역(볼린스크, 리브니스크, 흐멜니츠크, 리비우, 이바노-프란키우, 테르노필, 자카르파트, 체르넵치 주)에는 동부 지역(크림자치구(세바스토폴), 하르키우주, 도네츠크주, 루하네스크주, 자포로지야주, 디네프로주 일부 지역)에는 중부 지역(비니치주, 체르카스주, 키이우, 디네프로주 일부 지역, 폴타바주, 체르니히우)에는 남부 지역(오데사주, 미콜라이우주, 헤르손주)에 해당된다.

2004년 키이우 국제사회연구소 (KIIS)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다수민족인 우크라이나계 77,82%, 러시아계 17,28%, 벨라루스계 0,57%, 몰도바계 0,54%, 크림 타타르계 0,51%, 불가리아계 0,42%, 헝가리계 0,32%, 루마니아계 0,31%, 폴란드계 0,30%, 유대계 0,21%, 그리스계 0,19%, 아르메니아계 0,21%, 롬계(집시) 0,10%, 가가우즈계 0,07% 등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2004년 조사부터 약 19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신뢰도 있는 인구조사 자료가 없다. 2014년 분쟁과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 지역 인구 구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3. 우크라이나의 언어 상황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전부터 우크라이나어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화(Українізація)'라는 민족건설과업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민족사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상징체계를 세우고, 영웅과 의례, 가치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민족건설이라는 과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Ukrainization 건설 정책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과 민족어인 우크라이나어의 지위를 고양하고 문화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우크라이나 언어, 문화의 증진과 보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역사학자인 흐루셰프스키가 제안한 정책이다. 러시아어로의 언어적 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족어인 우크라이나어가 국가 공식 언어(state language)로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정책의 3대 과제인 재료계획(corpus planning), 지위계획(status planning), 습득계획(acquisition planning)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9, p. 316].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미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을 번갈아가며 취한 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민족 언어의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해야 하는 임무를 갖게 되면서, 민족과 국가 정체성을 함께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민족과 국가 정체성을 함께 건설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중 하나는 언어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화 민족건설과업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 언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언어정책은 지도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우크라이나어 공적 사용을 강·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을 거치면서 동부와 서부의 대립, 친러시아와 친서방의 대립 구도는 언어 상황(language situation)과 언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989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언어에 관한 법률(Закон української радянської соціалістичної республіки про мови в українській РСР)'을 입안한 바가 있다 [16].

사실, 소비에트 붕괴 전 1989년 헌법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식어는 우크라이나어'를 '민족 간 소통 언어는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와 기타 언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언어의 지위를 규정짓는 일은 언어 지위 결정에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어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이미 그 지위가 상승되었고 본격적인 우크라이나화 민족건설과업은 독립 이후 시작된다.

독립 직후 우크라이나화 과업과 함께 시작된 언어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립 직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했으며 정부는 국가 정체성, 우크라이나화 민족건설과업 등과 함께 이중고를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국가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족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어의 부활의 목표가 언어 정책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게 하는 언어 정책은 러시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었다.

1996년 우크라이나 헌법 제10장 '우크라이나어(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식어는 우크라이나어이다. (중략)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의 언어인 러시아어 및 기타 소수 민족들의 언어들에 대한 자유로운 쓰임과 보호를 보장한다 [17].

당시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러시아어 및 기타 소수 민족들의 언어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어는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러시아에 대한 명시는 그만큼 신생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고 제2언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러시아 정치인들은 러시아어 지위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러시아어 공식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에는 언어 문제가 공식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적 이슈로 2004년 말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방과 친러시아 세력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다.

우크라이나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된 법률은 2012년에 친러 야누코비치 집권 중 '국어정책의 원칙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Про засади державної мовної політики»)이다. 이 법률은 러시아어 및 소수 민족 언어에 '지역어(Регіональна мова)'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특정 지역어나 소수 민족 언어 사용자가 10% 넘게 거주하는 지역의 법정, 학교, 정부기관에서 그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 법률로, 이를 통해 지역어의 지위가 부여된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거주 러시아어 화자의 러시아어 공적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법적으로 배타적 공적 사용이 보장되어 온 우크라이나어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지역어(Регіональна мова)'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헌법 제10조를 따른 러시아어와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 또한 보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법률의 위헌여부는 쉽게 판정나지 않았고 결국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과 크림 공화국의 합병, 돈바스의 분리주의 내전이 일어났다.

2019년 당시 '국가 언어로서 우크라이나어의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забезпечення функціонування української мови як державної»)이 통과되었다.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우크라이나어 교육을 강화하고 장려하며, 우크라이나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우크라이나 내 언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 공식 문서와 공무원은 물론 우크라이나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 입시, 졸업 요건으로 우크라이나어 시험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된다.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언어법'에 대한 반발이 커져 실제 업무 교육 현장에서는 러시아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언어 문제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우크라이나어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400여 년 동안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의 언어 동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는 공산화되어 소련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제정러시아의 언어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레닌은 개별 민족어 사용에 관대했고, 당시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을 통해 191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후반까지 민족어 사용을 장려하여, 여러 민족어의 표준규범을 정비하고 사용을

1917년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어 사용이 증진되지만 소비에트 시기에는 정부에 의해 우크라이나어에 대한 강제 러시아어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어의 러시아어화는 철자법과 과학용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우크라이나어에 대한 러시아어화 압력은

각 상황에 따라 1939년~1941년, 1955년~1967년에 다소 완화된 적이 있었다 [7, p. 294].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민족어와 러시아어가 공존하는 이중 언어(bilingualism)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부 지역은 폴란드어, 동부 지역은 러시아어의 강한 영향을 받아 동남부 지역에는 변형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혼합어(방언) 수르직(суржик)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키이우 국제사회연구소(KIIS) 2003년 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우크라이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화자,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인 화자,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러시아인 화자, 기타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등으로 구분했다 [11].

언어 사용자 구분	1991년-1994년	1995년-1999년	2000년-2003년
우크라이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계 화자	41,2	46,3	45,4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계 화자	32,6	28,2	30,9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러시아계 화자	19,7	17,0	16,5
기타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비우크라이나계 화자	6,5	8,5	7,2

Table 1: 우크라이나 국민(성인)의 언어 사용 상황 (단위: %)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계 화자 41,2%가 우크라이나어를 제1언어로 유지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계 화자 중 32,6%와 러시아계 화자 중 19,7%가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계 화자 46,3%로 우크라이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화자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 우크라이나계의 화자수는 28,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비우크라이나계 화자의 수는 6,5%에서 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계 화자 45,4%이고, 1995년-1999년(46,3%)보다 감소되었다.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계 화자 28,2%에서 1995년-1999년 기간 동안 30,9%로 증가했다.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러시아계 화자

17,0 %에서 1995년-1999년 기간 동안 오히려 16,5 %로 감소되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크라이나화 과업을 위한 여러 가지 언어 정책과 언어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계 비중도 비교적 높고 러시아어를 실무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러시아와 다른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언어 정책을 위해 러시아와 다른 정체성을 소유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다.

한편, 사회 조사 기관인 라쭘콥연구소(Razumkov Centre)의 2017년 조사의 의하면 '우크라이나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 는 조사자는 43,6 %이다. '러시아어를 제2의 공식 언어로 인정해야 된다.' 는 조사자는 23,9 %, '러시아어를 특정 지역어로 사용해야 된다.' 는 조사자는 25 %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로 인정해야 된다.' 는 조사자는 2 %로 나타났다. 앞서 키이우 국제사회연구소(KIIS)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계 화자 수는 45,4 %를 차지하는데 라쭘콥연구소 조사 결과의 43,6 %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어가 많이 쓰이고 있었지만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은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시기이지만 언어 문제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4. 언어 상황과 교육 정책

헌법 제53장 '교육 권리'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소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법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 또는 소수 민족 문화단체에서 모국(소수 민족)어 교육 또는 모국(소수 민족)어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17].

여기서 볼 수 있는 언어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러시아어는 헌법상 구체적인 언급도 되지 않지만 기타 소수 민족어와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교육법(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освіту») 제3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언어는 국가 공식 언어이다. (중략)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 국민들은 법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국가 공식 언어와 동등하게 소수 민족 언어로 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략)우크라이나 토착민 국민들은 법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국가 공식 언어와 동등하게 토착 언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략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민족, 토착민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소수 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용, 보호가 보장된다. 즉, 우크라이나 내 여러 언어의 사용과 여러 언어로 교육 받은 일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에 서명된 '국가교육 발전 대통령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Про Національну доктрину розвитку освіти»)에 경우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고 2장2조, 2장3조와 4장8조 '언어교육 정책'에 관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20]

우크라이나어 교육 공간 확대, 우크라이나어의 보존 및 발전, 모든 국민들의 우크라이나어 필수 습득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어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우크라이나화 민족건설과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교육 언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4년 이후 러시아어 학교의 수가 급속히 줄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침공으로 인해 2199개의 초중고학교가 파괴되었으며 225 곳은 완전히 소실됐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는 유럽 지방 언어·소수 언어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ECRML) 규정에 따라 소수 민족 언어로만 인정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지방 언어·소수 언어 헌장 언어로는 벨라루스어, 불가리아어, 가가우즈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몰도바어(루마니아어), 폴란드어, 롬어(Romani language), 러시아어, 슬로바키아어, 이디시(Yiddish) 등 포함시키고 이 언어들을 보호하고 있다 [12].

5.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 현황 및 지위

우크라이나 학계와 교육계는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 지방 언어·소수 언어 헌장 규정에 따라 소수 민족과 토착어 언어구사 실태와 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 민족과 토착민을 위한 언어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소수 민족(토착)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공식 언어인 우크라이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이들이 소수 민족(토착)어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 언어 사용 비율에 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67,5 %는 자신의 모국어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29,6 %는 모국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2,9 %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언어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2: 2001년 언어 사용 비율 (단위 : %)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국민 중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는 이중 언어 화자들이며 나머지 소수 민족 국민들은 삼중 언어 화자들이다. 벨라루스계 국민들의 경우 우크라이나어 사용 비율은 64,3 %이며 러시아어 사용 비율은 85,8 %이다. 벨라루스계의 언어 상황은 자신들의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31,7 %에 해당되며 한 언어는 우세하고 다른 언어는 열세하며, 지배적 언어가 소수 민족어를 잠식하여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Table 2에서 주목되는 소수 민족어로는 헝가리어와 루마니아어이다. 특히 헝가리계 국민 97,5 %는 자신의 소수 민족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크라이나어는 49,1 %로 러시아어는 31,7 %로 조사되었다. 헝가리어 사용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헝가리계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인데 자카르파트 지역이라고 불린다. 이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헝가리 지역으로 슬로바키아로 편입 그리고 1944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지역이다. 둘째, 소련 지배 당시에도 헝가리어 학교가 있었으며 소련 말기에는 이 지역에서 언어 정책은 러시아어를 노골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헝가리계 국민들은 자신의 소수 민족어를 보존 할 수 있었다. 셋째, 독립된 우크라이나에서는 헝가리어 학교가 증가했으며 헝가리 정부로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루마니아어에 경우도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94,5 %이며 우크라이나어 사용 비율은 43,9 %이며 러시아어 사용 비율은 45,5 %로 나타났다. 루마니아계 국민들도 헝가리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소련으로 편입되기 이전 이 지역은 부코비나라고 불렸으며 루마니아계, 헝가리계, 몰도바계가 많이 거주한 지역이다. 이 지역도 2001년 당시에 러시아어 학교가 있었지만 2017년에 전체 학교의 14 %에서 루마니아어로, 5 %에서 루마니아어와 우크라이나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7, p.182].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단일 언어(Monolingualism) 국가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적으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전에 동남부지역에는 러시아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남부 지역에는 우크라이나어와 헝가리어, 몰도바어, 루마니아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어와 헝가리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등 사용되는 이중 언어 국가이다. 현재는 두 언어가 모두 널리 사용되는 상보적 이중 언어(Complementary Bilingualism) 상태지만,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 언어정책 및 법률 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어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추가적 이중 언어(Supplementary Bilingualism), 즉, 한 언어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다른 언어가 보충적 역할을 하는 상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국어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들이 우크라이나어 사용 확장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5, p.302].

6. 소수 민족 언어와 토착민의 언어 교육 정책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2013/2014학년도에 우크라이나에는 초중고 학교 19,300곳에서 420,4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14].

하지만 2014/2015학년도에는 초중고 학교는 19,000곳에서 17,600 곳으로 학생 수는 420,400명에서 375,700명으로 줄었다. 그 이유는 크림공화국의 합병, 돈바스의 분리주의 내전으로 인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수의 조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전면침공 이전 2020/2021학년도 현황을 보면 초중고 학교 14,900곳에서 421,1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학생 수는 421,100명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학부 산하에 있으며 소수 민족 언어 교육과 토착민 언어 교육을 포함함 모든 외국어교육은 정부와 교육과학부에 의해 추진 방향과 목표가 기획·실행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외국어교육은 '2011 국가표준교육정책' 과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신 우크라이나 학교(Нова українська школа: NUS)'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2011 국가표준교육정책'의 교육 목표는 1단계(모든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정비하여 초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와 2단계(모든 중등학교에 외국어교육을 안착시키고 이를 고등교육과 연계하는 것)로 제시되어 있다. [1, p. 414].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소수 민족 언어로 교육하는 학교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소수 민족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 언어와 우크라이나어 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2011 국가표준교육정책'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형식과 수준을 유럽 연합의 표준 교육 체계에 맞추려 했다. 외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유럽 평의회가 제시한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이 주로 활용되었다.

2017년에 개정된 우크라이나 교육법(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освіту»)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17년 교육법(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освіту») 제7조에서는 '소수 민족 언어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내에) 소수 민족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언어 교육 과정 개설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법(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національні меншини в Україні») 제6조에서도 '민족 언어 교육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5].

즉, 소수 민족 학생들은 우크라이나어 학교 내에서 소수 민족 언어 반이 운영될 경우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 교육에 대해서도 '토착 언어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에) 토착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언어 교육 과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우크라이나 토착민법(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корінні народи України») 제5조에서는 '우크라이나 토착민들은 토착민의 교육기관 설립할 권리를 보장받는다.(생략) 토착민의 언어, 역사, 문화를 토착어로 학습할 권리가 있음 (후략)'을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토착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들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보존·발전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2017년 우크라이나 교육법(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освіту»)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수 민족 학교들이 운영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어 학교 내에 소수 민족 또는 토착민 언어 교육 과정 설치·운영을 통해 토착민이나 소수 민족 언어의 교육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 민족(토착민)의 언어로 전과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 소수 민족(토착민) 언어로 배울 수 있는 반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우크라이나어 학교에서는 영어 또는 유럽연합(UE) 공식 언어로 된 과목 개설 및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UE) 공식 언어에는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계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과학부는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2017년 말에 구체화된 정책을 제시했다. 교육과학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우크라이나계 국민, 소수 민족 국민, 토착민 국민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침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는, 2018년부터는 러시아어로 된 교과서 출판을 중단하는 것이다. 즉, 교육에서 언어정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어 학교 내에서는 러시아어 과정 개설·운영을 허용하되 러시아 학교 자체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어 학교가 다수였지만 735곳은 소수 민족 학교들이다. 러시아어 학교는 581곳, 루마니아어 학교는 78곳, 헝가리어 학교는 71곳, 폴란드어 학교는 5곳이다 [18].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소수 민족 학교 설립보다 우크라이나어 학교 내에 소수 민족 및 토착민 언어 반을 개설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개설의 주목적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 공식 언어로서의 우크라이나어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다. 또한 한 가지 원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들 수 있다. 소수 민족 학교 졸업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우크라이나어 과목 낙제자가 수년 동안 50-6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 민족 언어와 이주민 언어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에서는 소수 민족 언어, 토착민 언어 반이 개설된 초중고 학교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어 학교 내에 소수 민족 및 토착민 언어 과정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홈페이지에는 소수 민족과 토착민 언어 과정 개설·운영 되어 있는 초중고를 위한 몰도바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크림 타타르어, 불가리아어, 아르메니아어, 가가우즈어, 이디시(Yiddish), 롬어(Romani language), 그리스어, 슬로바키아어 교육과정이 등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 언어 및 토착민의 언어 교육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교육 정책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상황 맥락에 맞는 소수 민족 언어, 토착민의 언어 또는 외국어를 교수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소수 민족 언어, 토착민 언어와 외국어교육이 과학, 기술, 공학 분야의 기초 소양으로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수 민족 학습자들과나 우크라이나계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외국어 능력을 과학, 기술, 공학 분야 학습에 활용하는 연습 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소수민족 언어, 토착민의 언어 등 교과를 통한 상호문화능력 함양을 꾀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다문화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소수 민족 학습자들은 모국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계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통해 다른 문화권 국민들과 상호문화적으로 소통하길 희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인 우크라이나어의 위상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과 토착민의 언어와 교육 정책에 대해 검토했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부터 현재까지 관용적이고 온건한 언어 정책과 소수 민족, 토착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 토착민 언어 정책, 교육 정책은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과 미사일 포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매일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독립 이후 오렌지 혁명, 키이우의 유로마이단 혁명, 크림 공화국의 합병, 돈바스의 분리주의 내전,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취한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조치 중 언어 정책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도 있다. 우선 정책의 기본 방향이 우크라이나어의 확산을 위해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공식 언어인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회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항은 없다. 우크라이나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학 강단에서 퇴출당하는 교수도 없다. 공직 취임에서도 우크라이나어 구사 능력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소수 민족 국민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후속 세대 교육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 거의 전체가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소수 민족 국민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국민들의 교육, 사회생활과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References

1. 김지혜·박안토니나『우크라이나의 초·중등 외국어교육 정책과 한국어교육과정의 과제국제어문』 제84집, 2020, 407-436쪽.

2.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URL: <https://mon.gov.ua> (date of access: 25.07.2023).

3.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національні меншини (спільноти) України»). 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2827-20#Text> (date of access: 16.07.2023).

4. 우크라이나 토착민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корінні народи України»). 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1616-20#Text> (date of access: 21.07.2023).

5. 임형백동슬라브족의 형성과 분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1호, 2022, 123–151쪽.

6. 정영주우크라이나 서부 체르넵치 주의 언어상황」 『슬라브학보』 제37권 1호, 2022, 173–198쪽.

7. 정정원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언어정책과 주-민족어의 지위», 『중소연구』 제41권 제3호, 2017, 281–331쪽.

8. 한정숙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 정체성」 『러시아 연구』 제 24권 제2호, 2014, 365–406쪽.

9. 허승철우크라이나의 이중 언어 상황과 언어의 정치학」 『러시아어 문학 연구 논집』 제30집, 2009, 315–341쪽.

10. 홍석우우크라이나 정체성의 재건: 신화, 민족사, 민족의 건설」 『동유럽발칸학』 제13권 제1호, 2011, 425–449쪽.

11. KIIS. URL: <https://www.kiis.com.ua/> (date of access: 09.07.2023).

12.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URL: <https://www.coe.int/ru/web/european-charter-regional-or-minority-languages/podpisi-i-ratifikacii> (date of access: 21.07.2023).

13. UNHCR Ukraine. URL: <https://www.unhcr.org/ua/en> (date of access: 10.01.2023).

14. Заклади загальної середньої освіти (за даними Міністерства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URL: https://ukrstat.gov.ua/operativ/operativ2005/osv_rik/osv_u/znz_u.html (date of access: 21.07.2023).

15.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національні меншини». 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2494-12#Text> (date of access: 07.08.2023).

16. Закон української радянської соціалістичної республіки «Про мови в українській РСР». 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8312-11#Text> (date of access: 08.07.2023).

17.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и. 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254%D0%BA%96-%D0%B2%D1%80#Text> (date of access: 08.07.2023).

18. На рідну мову. URL: <https://lenta.ru/articles/2017/09/15/reforma> (date of access: 25.07.2023).

19. Розподіл населення регіонів України за рідною мовою. URL: <http://2001.ukrcensus.gov.ua/i/u/cens2001.pdf> (date of access: 16.07.2023).

2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Про Національну доктрину розвитку освіти». 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347/2002#Text> (date of access: 09.07.2023).

21. Ярмоленко М. І. Мови корінних народів та національних меншин в Україні: правничо-політична база функціонування. *Наукові записки ІПіЕНД ім. І. Ф. Кураса НАН України*. 2012. № 5. С. 203–215.